

#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 노력 박차

### 정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전남 e-모빌리티 등 7곳 지정 발표 따라 전북도,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주력'... 군산·새만금 산단 중심 지정

24일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표에 따라, 전북도는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곳이다.

전북의 강점이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변화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정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전북도는 오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세계적인 환경 및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주목했다.

전북도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초부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

로 간담회, 설명회 및 현장중심의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법률검토 및 부처방문 등을 통해 미세먼지지감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했다.

특구지역은 군산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액화도시가스(LNG)엔진형 상용차(화물차, 건설기계 등) 시장창출 실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됨에 따

라 특구내에서 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의 분류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친환경 미세먼지지감 상용차산업을 구축하여 부품 및 완성차 기업의 1조 77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우 건설기계의 10%를 LNG 엔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사회적 처리 비용 8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지역의 혁신성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전북 미세먼지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 전문위원 위촉

신영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신 위원장이 지역산업일자리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해 이명박 정부 시절 지역발전위원회란 명칭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됐다.

또 균형위는 그동안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전문역할만 제한적으로 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할이 확대됐다.

기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지역발전투자협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관련 사항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신 위원장은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과제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신영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어떤 국정과제와 비교해서도 가장 핵심인 정책"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군산시와 전북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 창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맞손을 잡고 있다.

## '일본정부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문' 채택... 시도지사협 총회 개최

### 신임 임원단 선출... 회장에 권영진 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서울 특별시장 박원순)는 24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선출된 제13대 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권영진 신임 회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

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 등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시도지사들은 통일부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이

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논의가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근 한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함과 동시에 양국은 향후에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회복하여 동북아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약용작물 유통 활성화 모색

### 도의회 농산경제위, 인삼 유통 활성화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가 웰빙 시대를 맞아 인기를 얻고 있는 인삼을 비롯한 약용작물의 도내 유통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약용작물(인삼)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북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안민실 소장은 전라북도 약용작물 생산·유통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약용작물 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단계 안정성 관리 및 우수품질 보급 등의 애로사항으로 고품질 생산에 한계가 있다"며 "약용작물의 소비확대와 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 인삼 생산·유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전북 인삼농협 신인성 조합장은 인삼산업 운영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전북 인삼산업 현황 및 생산·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신 조합장은 "전라북도는 인삼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부족하다"며 "인삼 직파재배로 인한 생산량이 증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량 부진과 관광산업 연계성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허중기 팀장은 전라북도 약용작물 통합 브랜드 구축 방안을 제안했고, 고려인삼수출협회 황광보 회장은 인삼 산업의 수출현황을 소개하며 인삼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지난 한 해 전라북도 인삼 생산량은 6110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생산·유통의 조직화, 규모화, 공동화가 미흡한 상태이다"고 진단한 후 "도내 약용작물 특히 인삼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약용작물 산업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